

도지사 공약사업 관리카드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공 약 명 | 북양양 IC~떡발재 연결도로 개설 | | | 관리번호 | 4-84 |
| 추진부서 | 균형발전과 | 담 당 자 | 김영웅 | 전화번호 | 3032 |
| 협조부서 | - | | | | |
| 실천목표 | 임기 이후 완료 | | 추진상황 | 지연 | |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미정
- 사업량 : 도로개설 0.7km(B=20m)
- 총사업비 : 17,000백만 원(도비 8,500, 시비 8,500)
- 주요내용
 - 연결도로 0.44km, 교량신설 0.26km

□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

(단위 : 백만 원)

| 구 분 | 총사업비 | 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기투자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임기이후 |
| 계 | 17,000 | 0 | 0 | 0 | 0 | 0 | 0 | 17,000 |
| 도 비 | 8,500 | - | - | - | - | - | - | 8,500 |
| 시군비 | 8,500 | - | - | - | - | - | - | 8,500 |

□ 추진실적

《기 추진실적 : '24. 1분기 기준 누계》

- '22. 8. : 속초시 부단체장 면담 및 속초시 실무부서 면담
- '22.10. : 현장확인 및 양양군 실무부서 면담
- '23. 2. : 속초시 및 양양군 기획실장 지속 면담 및 현장확인
- '23. 6. : 양양군 지휘부(부군수) 면담 및 지역의견 청취
- '23. 9. : 양양군 및 속초시 지휘부(부단체장) 면담 및 지역 동향 청취
- '23. 10. : 속초시·양양군 실무부서 도의회 도정질문 전파 및 업무협의
- '23. 12. : 기초지자체 지휘부(속초시장, 양양부군수) 면담 및 상생방안 논의
- '24. 3. : 속초시 지휘부(부시장 등) 및 지역 도의원 면담, 향후방안 논의

《2024년 2분기 현재》

- '24. 5. : 속초시 및 양양군 부단체장 업무협의
 - '24년 하반기 '설악권 4개 시군 행정협의회' 개최 시 긴밀히 협의

《현재까지 목표달성》

| 주요사업 | 목표치 | 추진상황 (완료/추진중/미착수) | 추진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속적인 지자체간 이견 조율 | <2023~2024> 해당 지자체간 협의 도출 | 추진중 | 지역동향 파악 및 지자체간 면담 추진 등 |

□ 도민소통 실적

| 계 | 주민간담회, 공청회 등 | 만족도 조사 | 민간전문가 자문 | 언론, 방송 | 기타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
| 9 | - | - | - | - | 9 |

□ 향후계획

- 해당지역 지자체(속초시, 양양군)간 동의 도출을 위한 상생방안 수립 노력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문제점
 - 사업대상지는 속초시와 양양군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, 지자체간 이견*으로 인해 당초 지역개발계획('18.1월)에 미포함
 - * 속초시 : 북양양IC~떡발재 연결도로 개설 사업 조속 추진 희망
 - 양양군 : 도로개설 시 양양 물치항 등 유입 교통량 감소로 사업 반대 의견
 - 현재 지자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정상 추진은 어려우나, 양양군에서도 지역주민(강현면 물치리)과 합리적 방안 모색 노력중임
 - 지방비 투입 '지역개발계획'에 대한 국토교통부 신규 승인은 가능하나, '국비 지원' 사업 추가는 어려운 실정임
- 대책 : 지속적 지역주민 동향 파악 및 지자체간 면담을 통한 이견 조율

<기대효과>

-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통한 도로 안전성 증대
-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지역간 연계성 확대